

연구단편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동성애 담론과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

전원근**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성소수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시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어떻게 대중적 인식의 지평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배제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남성 동성애자들의 실천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적한다. 이 시기 『선데이서울』과 같은 대중 미디어는 동성애를 한국 사회와 문화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자 AIDS를 통해 국민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연결시키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끊임없이 재생산했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보갈’로 지칭하고 서로에 대한 연민과 공통의 정체성을 발전시켰으며, 시공간의 분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은 집단 내부의 차별과 배제로도 이어졌다. 이 연구는 이 시기 형성된 담론적 층위의 동성애와 실천적 층위의 동성애자 집단의 여러 요소들이 현대 한국 사회의 동성애 이해 방식과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산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주제어: 동성애, 이성애규범성, 사회적 타자, 호모포비아, 이쪽세계

* 본 연구는 201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SNUAC-2015-001). 귀중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신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 퀴어락(Korea Queer Archive)의 활동가 여러분, 연구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배은경 선생님과 우주현 선생님, 『젠더와 문화』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포스트식민퀴어연구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wonggui@gmail.com)

© 2015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역사 서술은 주로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¹⁾ 1990년대에는 최초의 동성애자 권리 운동이 시작되었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발전하는 등 집단으로서 동성애자의 가시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다시 2000년에 시작된 퀴어문화축제와 유명 연예인의 커밍아웃, 동성애를 주제로 제작된 미디어 콘텐츠들의 성공, 동성애 혐오의 조직적인 가시화 등에 힘입어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물질, 인적, 정보의 교류와 유통이 급증하면서 동성애자들은 인정 및 권리투쟁, 욕망과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세계사적 시간과 동시대성을 획득하였고, 이른바 ‘핑크머니’의 축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의 소비문화는 역으로 국내를 벗어나 주변국들에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1990년대 중·후반 이후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있는 반면, 그 이전의 경험들은 그 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의 사적인 기억 속에만 남아 있을 뿐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역사적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례연구의 부재는 더욱 특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학계의 무관심과 무시에서 기인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대상의 역사적 애매모호성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어떠한 인류의 역사에서도 동성간의 성적 실천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²⁾ 그러나 이를 단순히 오늘날

1) 한국 여성 동성애자의 역사를 연구하였던 한채윤(2011)은 주로 1990년대 이후의 변화들을 분석하면서, 이전 시기의 역사는 ‘전설’로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조성배(2011)의 연구 또한 1990년대 이후의 전환기적 맥락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기 쉽지 않다.

2) 박관수(2006)는 강원도 지역의 노인들을 면접조사하여 1940년대 강원도 일대에서 매우

의 용어로서 ‘동성애’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는 동성애는 동성간의 성적 실천 이외에도 근대적 사랑과 우정,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성, 정치적 주체성,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적 동질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구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동성 간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동성애(자)의 역사’를 세우려는 작업들이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부딪히는 주요한 딜레마 중의 하나로서 동성애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의 성적 실천만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는 정치적, 문화적, 담론적인 구성물이자 수행성(performativity)에 기반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현대적인 범주로서 동성애(자), 호모섹슈얼리티, 트랜스젠더, 성적 지향, 게이, 레즈비언 등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성소수자 운동의 발흥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 전지구적 정보의 흐름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을 정체화하고 문화를 가지면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래서 서동진(2005: 72-73)이 “한국사회에서 1970-1980년대에 동성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게이,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구성주의적 성격을 생각할 때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현대적’인 의미의 동성애와 ‘전근대적인’ 동성간 성적 실천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 또한 동성애의 역사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남자동성애’ 문화를 추적한다. 이 조사를 통해 그는 1940년대 남성간 성적 실천이 “공공연하게 합법적이지는 않았을지언정, 은밀하고 사적인 행위에 머물지는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용인되었다”고 추론한다. 한편, 혼마 규스케(2008)의 『조선잡기』에서는 남자 아이들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뺨 살’이라고 칭하며 ‘뺨 장사’(성매매)를 다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장정일(1988)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남성 주인공이 어린시절 소년원에서 ‘뺨장이’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한 남자와 사랑을 하면서 호르몬 요법을 통해 MTF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박관수의 연구에서 보이는 ‘뺨’이 다시 한 번 긴 시간을 뛰어 넘어 19세기 말과 1980년대의 소년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뺨’이 사회에서 잊혀지는 동안 소년원과 같은 비가시화된 제도적 공간 속에 잔존하고 있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

다. 데이비드 헬퍼린(Halperin, 2002: 19)은 현대의 동성애(homosexuality)와 과거의 남색(sodomy)을 존재론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관점은 과거의 방식과 닮은 현대의 주변화된 성적 실천들과 에로티시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선별하고, 그것들을 “잔존물이나 옛날의 것(residual and archaic)으로 다루면서 비실체화(derealizing)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적’이지 않은 동성애의 요소들은 뒤쳐진 것, 덜 발전된 것, 전근대적인 것, 원시적인 것, 혹은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된다. 그는 푸코의 계보학적 관점을 따라 오히려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를 과거로부터 상속되어진 서로 다른 의미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절합물로 본다.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1990년대 이전에 대한 몰이해와 망각은 한국의 동성애는 모든면에서 1990년대 초라고 하는 분기점을 가지는 최근의 현상이라고 하는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신화는 한국의 동성애를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근대와 전근대로 나누게 되는 시간적 단절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진일보한 서구와 그렇지 않은 비서구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절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인식은 현대 한국의 ‘동성애’라고 하는 관념적 범주, ‘동성애자’ 문화 및 그것과 관련된 담론적, 경제적, 인적 네트워크들이 성소수자 운동의 시작과 무관하게 ‘연속’되어 왔다는 점을 보지 못하게 하며, 무엇보다 ‘과거’와 ‘현대’를 대립시키고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라고 하는 상상물을 오히려 특권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동성애자의 역사적 모호성은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되어 있다. 인권과 사회적 성원권 또는 시민권을 기반으로 ‘소수자’로서 주체화하고 있는 현재와 달리,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성소수자 운동 이전의 상황에서 동성애자의 지위는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사회적 타자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사회적 타자화의 과정이 타자화를 수행한 사회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근식(2013: 185)은 소수자의 개념을 “20세기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사회

적 타자라는 개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비서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역사 쓰기는 한편으로는 동일자로서의 역사 쓰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남색’이라고 하는 인식론적 분절이 가져오는 한계에 대한 비판에 이중으로 구속될 수 밖에 없다. 이 연구 또한 연속과 단절 사이의 혼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연구 대상시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담론적 층위의 ‘동성애’와 실천적 층위의 ‘동성애자’는 현대적 의미의 ‘동성애/자’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이자 유산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글은 먼저 본격적인 동성애자 권리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인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 내부에서 ‘동성애’가 어떻게 인식의 지평에 등장하면서 동시에 배제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풍경을 그리고자 한다. 보다 정확하게는 1985년 국내 외국인과 중동에서 귀국한 한국인의 HIV 최초 감염이 확인된 직후인 1986년부터 대중 주간지였던 『선데이서울』이 폐간되는 1991년까지의 6년간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의 이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인 『선데이서울』은 1968년부터 1991년까지 발행된 주간지로, ‘성’에 대한 대중적인 관념과 태도, 사건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로 선정하였다. 대상 시기 동안 『선데이서울』에서 직접적으로 ‘동성애’, ‘동성연애’, ‘호모’, ‘레즈비언’, ‘게이’ 등을 다루거나 거론한 기사는 총 10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1년 평균 17건 정도로 보도되었다. 이 중 37개는 외신을 전하는 형태였고, 상대적으로 자세히 다룬 취재 기사나 ‘현장고발’, ‘특집’ 등의 보도가 38건이었다. 보도 내용은 연예인의 가십부터 선정적인 기사, 사건 보도, 사회 비판 등 다양하였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대중적 혐오(homophobia)의 형성에 다름아니었으며, 이 연구는 동성애자들의 경험을 추적하여 그러한 사회적 시선에 대응했던 동성애자들 자신의 실천에 있어 어떠한 한국적 특수성이 형성되었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자신들을 ‘보갈’로 지칭하였던 남성 동성애자의 경험과 타자화된 주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성(연)애자’, ‘호모’와 같은 지칭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들에게 있어 제3자가 붙이는 사회적 명명(social labeling)일 뿐이었으며, 남성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보갈’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과정에 대응하고 스스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정확히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 모르지만, ‘갈보’를 뒤집은 이 말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어떤 개념과 함께 주변화된 섹슈얼리티에 대한 동질감을 나타내며, 남성 동성애자들이 현재까지 지난 수십년간 자기 자신들을 향해 사용해 온 긴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 ‘동성애자’라는 용어가 인식론적 혼돈을 가져온다면, ‘보갈’은 적어도 1990년대 전후의 한국사회의 남성 동성애자들의 경험과 정체성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은폐되고 누락된 존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트랜스젠더’라는 “같은 범주”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이태원의 트랜스젠더 역사를 추적하고 ‘복원’하였던 루인(2012)의 이정표적인 작업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대 한국사회의 ‘동성애’ 이해방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 남성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여성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간접적으로는 규범적이지 않은 이성애 등의 다양한 범주들이 함께 작용하였음을 주장하지만, 남성 동성애자에 집중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무엇보다 자료의 한계에 기인하였다. 『선데이서울』에는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게이”)에 대한 보도가 적지 않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 시기 여성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경험에 대한 조사자료나 문헌은 거의 없다. 반면,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동성애자이자 HIV 감염인인 저자가 1993년에 출판한 일종의 고백록인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를 통해 동성애자 자신의 경험과 실천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대한 경

험들을 기록한 귀중한 자료이자 선행연구로서 ‘동성애자인권연대’(이하 ‘동인련’, 현재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서 2013년에 발간한 「40-60대 남성 동성애자 HIV/AIDS 감염인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1980-90년대를 경험한 남성 동성애자의 구술을 채록하고 서울의 남성 동성애자의 성적 실천에 있어 공간적 변화와 HIV/AIDS 감염에 대한 경험들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위 자료들은 작성 당시 또는 조사 당시 기억을 회고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주체가 1차적으로 이미 해석하여 구성된 기억이기 때문에 비록 『선데이서울』의 기사 등을 통해 보충한다 해도, 본 연구가 이 시기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담보한다고는 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힌다.

2. 오염과 위협: 1980년대 주간지와 동성애자의 사회적 타자화

1) 오염과 타락으로서의 동성애

한국의 1980년대는 이전 수 십년간 지속된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에 이르는 투쟁의 역사로 기록된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1980년대는 이른바 ‘압축적 근대화’³⁾의 결과가 가시화되는 시기로서 도시화가 완성 단계에 진입하고,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중산층 핵가족 모델이 일반화되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서구사회의 지식과 정보들이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핫토리 타미오(2006)에 따르면, 1980년대

3) 장경섭(2010: 507)에 따르면,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가 시간·공간적 차원을 아울러 극히 단축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이질적인 역사적 및 사회적 문명요소들이 동적으로 공존하면서 매우 복합적이고 유흥적인 사회체계가 구성·재구성되는 사회적 상황을 지칭한다.”

한국사회 변화의 특징은 3차산업 비중이 크게 늘고 임금이 상향평준화되면서 중산층 의식이 확대되고, 가족규모는 작아지면서 서구화되고 다양화된 소비지출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특히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억압함으로써 시작되었던 제5공화국은 일종의 국민적 탈정치화를 위해 ‘3S(Screen, Sex, Sports) 정책’을 국가적 시책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였다(심은정, 2004). 이현진(2014: 103)에 의하면 “70년대와 80년대의 사회의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성(性)’의 규제 여부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 모두 권위주의적 정권이 공포정치를 실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1970년대의 두발단속과 미니스커트 규제 및 야간통행금지와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신체 규율은 1980년대에 와서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애마부인〉, 〈변강쇠〉 등과 같은 1980년대 ‘성애영화’가 등장하고 심야상영과 함께 어느 정도의 성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1980년대는 낮과 밤으로 양분된 세계이기도 했다. 이전 시기와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개인의 욕망과 쾌락에 대한 요구도 거세졌지만, “거대담론 속에서 개인의 쾌락 또한 죄악시했고 정치적 금욕주의가 개인의 일상을 억압했다”(이현진, 2014: 115). 따라서 개인의 욕망과 쾌락은 사적 영역으로 분리되는 가운데 그것의 충족이 보이지 않게 시도되었다. 『시네 21』(2001.4.3)에 기고된 심산 작가의 회고는 정확히 이러한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당시의 대학생이었던 우리는 참으로 그로테스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낮에는 전두환의 폭압정치에 맞서 돌을 던지고 밤에는 전두환의 자유화 정책에 발맞춰 싸구려 에로영화를 보며 킬킬댔던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는 1990년대 초중반에 성소수자운동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 투쟁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다양한 범주들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었다. 동인련(2013: 12)의 보고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남성 동성애자들의 소비문화와 계토, 집단과 네트워크들이 형성되

던 “일종의 과도기적 시기”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동성애자 집단 내부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대한 대중적 시선과 담론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에 대한 국가적 규율이 느그러워진 1980년대의 대중잡지에서는 최종적으로 동성애로 연결되는 변별적인 내러티브들이 유통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일국적인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전후 퀴어 남성 문화를 연구한 스가누마(Suganuma, 2012: 19)는 일본의 퀴어 남성 문화의 형성이 서구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분석하면서 이 시기에 생산된 잡지 등의 매체를 “지리적, 역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체들이 공존하는, 그 궤적들이 이윽고 교차되는 시공간”으로 정의한다. 1980년대에 선정적인 기사들을 다루었던 황색잡지들 중에 대표적인 『선데이서울』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사건·사고들과 함께 외국의 뉴스나 화제들을 국내로 전하였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서구적) 시간과 지역적(한국적) 시간이 교차되었던 공간으로 상정할 수 있다.⁴⁾ 더 나아가 무엇이 서구적인 것 또는 외국의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한국적인 것인지 자체를 끊임없이 재발명하였다.

『선데이서울』과 같은 대중잡지에서는 동성애를 포함하여 ‘변태’적 섹슈얼리티들이 국내외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재발견되어 왔다. 이는 일차적으로 동성애가 외부로부터 기인한 것이자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비도덕적 주체들의 표지로서 이해되면서 한국사회 또는 민족/국가를 오염시키는 요인들로 상정되는 구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구도의 한쪽에는 동성애와 함께 성매매 여성(1987.11.15), 성구매 여성(1987.12.25), 외국인을 좋아하는 한국 여성(1989.6.11), 한국 여성을 좋아하는 외국인 남성(1988.11.27), 청소년과 미혼모(1986.3.9), 섹스토이와 포르노그래피(1988.10.2), 남창

4) 한편, 임종수·박세현(2013)은 1970년대의 『선데이서울』을 “이성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국민’의 담론”과 “감각적으로 욕망하고자 하는 ‘대중’의 담론”이 절합되는 장소이자, 성에 대한 유희와 계몽을 주도한 매체로서 분석한다

(1986.8.10) 등과 같이 이성애 관계일지라도 비규범적이거나 전통적인 젠더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들이 함께 배치되어 고발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선데이서울』은 여성의 신체와 성을 대상화하고 남성의 성기능과 성적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통 요법에서 수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쏟아내었다. 즉 이미 김수정(2011)이나 임중수·박세현(2013)이 이전 시기의 『선데이서울』을 통해 분석했던 바와 같이, 『선데이서울』은 성을 지배적인 젠더질서 안에 머물게 하고 싶은 남성들의 욕망을 드러냈고, 주체로서의 남성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여성들과 주변적인 남성성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사회 병폐나 타락을 비판하는 ‘비평’의 모습을 취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서 동성애는 꺼려지는 주제라기보다는 가장 흥미있고 자극적인 대상 중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동성애는 가십과 농담의 수사로서 사용될 정도로 대중적으로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동성연애자라니요’, ‘핑크자매’ 악성투머로 골치”(1987.9.27)라는 기사는 동성연애를 한다는 소문에 ‘죽을 맛인’ 듀엣 가수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림 1〉 동성애를 이용한 유머들



자료: 『선데이서울』, 1987.9.20, “우리는 레즈비언”. / 1990.5.20.,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티올, 2015), 1980년대 동성애와 관련된 기사들의 상당 부분은 해외토픽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의 대중적 관념 속에서 ‘동성애’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발견되는 신기한 일로서 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그리고 동시에 변태적인 성문화는 『선데이서울』의 성에 대한 선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알리바이이자 동시에 민족문화의 고결함을 증명하는 알리바이로서 기능했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 부부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1986.4.6), 성전환한 남녀의 결혼식(1986.2.16), 유명 배우의 동성연애 스캔들(1987.3.8), 외국 동성애 집단에서의 AIDS의 확산(1986.7.20) 등의 소식이 외국의 신기하고 별난 뉴스로서 전해졌다. 무엇보다 동성애는 새롭고 이상하고, 우리의 문화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서 다루어졌다. 경악하는 독자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그 반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렇게 동성애를 ‘새롭게’ 재발견하며 놀라워 할 때마다, 그 반대편에서 우리의 전통 또한 동시에 이성애규범적인 것으로 ‘새롭게’ 재발견되어 왔다.⁵⁾

하지만 해외의 동성애는 완전히 다른나라 이야기로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곧 다른 지면에서 국내의 동성애를 새롭고 별난 것으로서 재발견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호모’나 ‘레즈비언’, ‘여장남자’ 또는 ‘게이보이’들도 국제적인 층위의 시간성과 국내의 시간성이 동조화되는 지점이자 한국의 사회문화가 오염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다루어졌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와 달리 레즈비언과 ‘게이’의 경우 여성의 신체와 성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1986년 7월 6일 기사인 “파출부와 여주인의 레즈비언 동반자살”에서는 내용과 상관없이 나체의 두 여성이 끌

5) 김순남(2013)의 연구는 한국사회를 “정상적인 가족” 형태가 국가의 기본 조직 단위가 되고, 가족형태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국가 이성애주의(national heterosexuality)”(Berlant and Warner, 1998: 550/연구자 재인용) 사회”(92)로 보고, 동성애자의 친밀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한다.

어안고 있는 사진을 크게 싣고 있으며, 이는 ‘게이’에 대한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해외 토픽에서 선정적인 사진과 함께 다루었던 일본, 동남아시아, 서구의 여장남자들의 모습을 국내에서 찾아내고(1986.7.6, 1986.7.20, 1991.2.24), 이들이 공공연하게 쇼와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재현은 동성애라는 사회적 구성물에 자본주의의 퇴폐적인 성문화의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동성애자의 신체와 욕구는 주변적인 것일뿐만 아니라 사회적·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타자화되었다. 물론 이 타자화는 여성적 신체에 대한 성애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1980년대 『선데이서울』에는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제스처와 함께 그것을 둘러싼 강력한 공포와 도덕적 평가들이 함께 나타났다. 성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그것을 탐닉하고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극대화되었으며, 동성애 또한 일종의 “마약”(1991.8.18)처럼 우리가 그것에 빠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판되곤 했다. 즉 이 시기 동성애의 재현은 단순히 동성애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규범적 이성애까지 포괄하는 타자화된 섹슈얼리티의 계열 속에 놓여 있었으며,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 특정한 형태의 이성애 규범성이 구축되는 총체적인 과정 속에 함께 놓여 있었다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이전의 성적 억압에서 80년대의 해방적 분위기로 나아간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실상 이 시기는 성의 해방이라기보다는 성의 관리가 1970년대 안보의 정치로부터 도덕적 개인 주체와 사회로 넘어가는 이행기로서 조심스럽게 타진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한탄할만한 새로운 현상으로서 동성애의 출현은, 그 출현을 목격함으로써 ‘우리’는 이성애적인 전통 속에 도덕적인 주체로서 살고 있다는 감각을 재확인하는 어떤 이성애규범적인 에피파니⁶⁾의 순간이기도 했다.

2) AIDS 파동과 테러리스트로서 동성애자

또한 이러한 문화적인 오염의 이미지는 다시 국내 첫 HIV 감염의 발생과 함께 극대화된 AIDS 공포기와 연결되면서 동성애는 국민의 신체를 위협하는 역학적(epidemiologic) 오염원으로 지목되었다. 한채윤(2012: 186)은 한국사회에서 AIDS와 동성애가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오염이라는 인식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둘의 연결은 국내 감염인이 많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선데이서울』을 통해 보면, 아무런 실증적인 국내자료도 없던 1990년대 이전부터 이미 동성애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⁶⁾ AIDS의 주요 매개원으로 지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11월 23일 기사는 동성연애 경험 있는 두 남자에게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1986년 7월 20일자 기사 “호모전용 사우나서 동성애 즐기다 걸렸다: 일본인 에이즈 환자가 털어놓은 감염 경로와 투병생활”에서는 서구사회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AIDS와 동성애가 연결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문란함이 HIV 감염의 매개로서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오히려 AIDS에 대한 공포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집중 취재기사를 생산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선데이서울』에서는 외국의 변태적인 성문화로 오염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6) McRuer(2006)는 사소한 계기들을 통해 이성애의 숭고함과 당연한 보편성을 깨닫는 과정이 문화적 재현들을 통해 순환되고, 이를 통해 이성애 주체성이 확고해지는 효과를 일컬어 ‘이성애규범적 에피파니(heteronormative epiphany)’라고 지칭한다.

7) 미국의 경우, 1970년대의 성해방 운동의 급진주의적 여파는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적 가치와 충돌하게 되고, ‘가족가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에이즈 공포는 동성애자들의 책임으로 연결되게 된다(정율, 2006).

8) 1985년 외국인이었던 최초 발견자의 동성연애 활동이 부각되면서 이후 국가의 에이즈 통제는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직접적으로 동성연애자, 외국인대상접대부, 외국인에 집중되었다. 에이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 두려움, 공포감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였고, 외국인과 동성연애자가 에이즈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동인련, 2012: 42-43).

사각지대로서 ‘동성연애자’ 혹은 ‘호모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출몰하는 ‘호모족’의 모습은 새롭고도 경악스러운 현상으로 재발견되었다. 이러한 기사들은 ‘P공원’, ‘서울 N동의 P극장’과 같은 구체적인 묘사를 제공하였으며, 다음 장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동성간의 성적 접촉을 갈망하던 독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림 2〉 AIDS 오염원으로 지목된 남성 동성애자



자료: 『선대이서울』, 1989.2.12, “한국 호모족, AIDS 겁안낸다”. / 1991.3.10, “충격! 리포트 에이즈 사각지대: 호모 1번지 낙원동”.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남성 동성애자 혹은 ‘호모’와 AIDS는 더욱 노골적으로 연결되어 제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에도 AIDS 공포가 확산되면서, 동성애는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사건을 넘어서서 보건학적인 테러의 이미지와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이후의 동성애 이해방식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외부에서 외래한 것으로서 민족문화를 ‘오염’시키는 타자이자, 동시에 물리적으로 성병, 특히 HIV 바이러스를 통해 국민적 신체를 ‘위협’하는 타자로 상상하는 동성애에 대한 현대적 이해 방식의 한 흐름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동성애를 외부적 오염으로서 새롭게 재발견하는 방식은 이전의 동성간 성적 실천의 문화의 망각을 전제로 이루어졌

으며, 따라서 오염되는 민족문화와 신체는 보호해야 할 순수한 것으로 상상하게끔 하였다.

<그림 3> 범죄로서의 동성애



자료: 『선데이서울』, 1986.10.6, “대낮 목욕탕 휴게실 호모족 판친다”. / 1991.8.11, “알몸 너무 이뻐” 소년 심벌 만지작”.

미디어에서 드러난 동성애자들은 주로 사건에 대한 보도나 경험담을 통해 대중목욕탕 수면실이나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범죄자 혹은 테러집단의 신체로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동성애혐오적 이해의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한다. 이 시기에 나타난 혐오의 구조는 2000년대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자주 기사나 경험담의 형태로 나타난다.⁹⁾ “사우나탕에 호모족”(1986.6.29)에서는 수면실에서 호모족에 의한 독자의 성추행과 그에 대한 “공포”와 “구역질”이 경험담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는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9) 최근의 실례로 한 유명 개그맨이 사우나에서의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뉴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뉴스는 인터넷 상에서 “더러운 똥꼬충”, “호모새끼를 씨를 말려야한다”는 대중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는 사우나에서 동성 성추행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담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테러리스트로서의 동성애자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반복적으로 기사화되거나 경험담으로서 회자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기층적 이해를 형성하고 있다.

하고 또 다른 독자들에게는 크루징(cruising)의 정보로 이용되기도 했을 것이다. “대낮 목욕탕 휴게실 호모족 판친다”(1986.7.20)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공공장소의 호모족을 지적하면서 “동성애 행위 엄금”이라는 안내문을 내걸면서 손님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주인들의 반응을 전하기도 한다.

한편, 1980년대 후반의 뉴스들에서는 주로 ‘호모(족)’이라는 명칭을 통해 이러한 신체들이 ‘게이(트랜스젠더)’와 구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87년 11월 1일의 “서울 한복판에 ‘호모카페’ 즐비”라는 기사에서는 ‘호모’와 ‘게이’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호모는 모두 남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게이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정신과 외모는 여자와 다른 일종의 신체장애자이다. / 게이는 거의 모두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만 호모는 자신을 철저히 은폐시킨다. / 반면 호모들은 부인을 두고 철저히 2중생활을 하는 양성 호모도 있는가 하면 남자들끼리도 파트너가 자주 바뀌거나 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해도 질투나 사랑싸움을 하지 않는다.

비록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호모’와 ‘게이’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채 혼용되며, 트랜스젠더 신체 이미지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이 둘의 구분은 곳곳에서 시도된다. 이 구분선은 장애가 없음에도 동성연애에 탐닉하는 비도덕적 주체와 “일종의 신체장애자”로서 살아가는 주체를 구분하는 선이기도 하였고, AIDS의 보이지 않는 주 매개원이나 아니나의 구분선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분선은 보갈들에게도 받아들여져 점차 자신들을 트랜스젠더와 구분짓고, 또한 집단 내부에서 HIV 감염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3. 보갈의 삶과 ‘이쪽 세계’의 형성

1) 1980년대 보갈의 “두 배의 삶”

이러한 담론적 층위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실천들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 이 ‘이전 시기’를 증언하는 자료들을 통해 적어도 남성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집단적 문화와 계도가 지속적으로 재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용어들(‘보갈’, ‘식성’, ‘때짜’, ‘마짜’, ‘더덕’ 등)¹⁰⁾과 만남의 방식들(호모바, 사우나, 공원, 공중변소에서 크루징 등)¹¹⁾, 관계의 양상들(익명적 만남, 교체, 동거, 성매매 등)뿐만 아니라, 더 이상 듣기 힘든 용어(‘바지씨’, ‘치마씨’, ‘작순이’, ‘널자’ 등)¹²⁾와 잊혀진 장소들(서울의 경우, 명동, 충무로, 신당동, 남산, 버스 터미널, 극장 등)이 포함된다. 현재의 성소수자 문화의 씬(scene: 이태원의 트랜스젠더 공연문화, 종로의 남성 동성애자 유흥업소 등) 또한 이 시기에 형성·확장되었고, 사회적인 이슈로서 대중의 시선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남성 동성애자들은 자주 공공장소에서 출몰하는 변태와 범죄자의 형상으로 여론에 소개되었다. 이전에 ‘반상의 구별 없이’ “주막, 사랑

10) ‘보갈’은 ‘갈보’를 뒤집은 말로 당시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지칭하는 은어였다. ‘식성’은 남성들의 신체성에 근거하여 보갈들이 선호하는 서로 다른 체형이나 스타일의 총칭을 의미한다. ‘때짜’는 성행위에 있어서 삽입을 주로 선호하는 보갈, ‘마짜’는 삽입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선호하는 보갈을 의미한다. ‘더덕’은 오까마/게이(트랜스젠더)가 여장을 위해 화장하고 꾸미는 행위를 의미함과 동시에 여장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11) 1960년대부터 명동, 을지로, 신당, 종로, 남산과 서울 시내 곳곳에 형성되었던 ‘캠프’에 대해서는 Buddy에 실렸던 이승희일(1998)의 글을 참고할 수 있으며, 친구사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chingusai.net/xe/index.php?mid=webzine&category=124728&document_srl=125014).

12) ‘바지씨’는 상대적으로 남성성을 강조하는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은어였으며, ‘치마씨’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여성 동성애자를 의미했다. ‘작순이’는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은어였고, ‘널자’는 업소를 많이 다니거나 성관계를 많이 하여 집단 내부에서 얼굴이 널리 알려진 보갈을 의미했다.

방, 산전, 공사관, 금전관”(박관수, 2006: 394) 등에서 이루어지던 동성간 성적 실천들은 한국의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야간의 도심공원, 극장, 사우나 수면실, 공공화장실 등의 공공장소로 만남의 시공간을 바꾸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공공장소들은 대도시의 주요 터미널과 도심에 분산되어 위치해 있었다. 서구 사회처럼 역사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가 있거나, 일본처럼 동성애자들에 의해 출판되고 구독되는 잡지가 있지 않았기에 이러한 장소들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우연히 알게 된 사우나나 극장에서 다른 보갈들에게 정보를 전해 듣거나, 터미널 화장실 벽에 쓰인 문구들을 통해 보갈들이 모이는 다른 장소들을 찾아내기도 하였다. 보갈들은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했을뿐만 아니라, 비동성애자들과 접촉하였고, 사건화를 통해 사회와 접촉하였다. 대중잡지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종로 낙원동에 대한 기사들(1987.11.1, 1989.2.26, 1989.3.5, 1989.3.12, 1989.3.19, 1989.3.26, 1991.3.3, 1991.3.10 등)은 단순히 일반 독자에게 편견을 재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으로 아직까지 ‘데뷔(극장이나 게이바와 같은 장소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보갈 생활을 시작하는 것)’하지 못한 보갈들에게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수의 보갈들은 이 시기 『선데이서울』과 같은 대중잡지나 여성잡지를 통해 종로의 ‘P극장’¹³⁾과 ‘호모바’를 처음으로 접했고,¹⁴⁾ 이

13) P극장은 파고다 극장을 가리키며, ‘P살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파고다 극장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이던 대표적인 장소로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20여년간 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1989년 파고다 극장의 한 좌석에서 시체로 발견된 기형도 또한 ‘P살롱’을 찾는 손님 중의 하나였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증언자들은 이 곳에서는 영화를 보는 사람보다 어두운 구석에 선 채 크루징(cruising)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기억한다.

14) 예를 들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 대담자는 자신이 동성애자로 데뷔한 계기로 『선데이서울』에 실린 ‘P극장’에 대한 기사를 꼽고 있다(<http://chingusai.net/xe/comingout/320539>). 이러한 증언은 동인련(2013)의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옛날에는 (업소들) 이는 방법이 이상해. 어디 뭐 화장실 가서 뭔가를 읽어본다거나...”, “처음에 막 잡지책 같은 거 보면 P극장, 뭐 그런 거 알잖아. 그러가지고 그걸

때문에 종로3가 일대는 보갈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계도로 성장해갔다.

1988년은 내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이리라. 그 해 가을, 나는 잡지 속에 실린 기사를 통해 종로를 만나게 된다. 나의 호기심은 보갈들의 산실인 종로3가를 그냥 지나치게 만들지 않았다. ... 어느 잡지에선가 종로 3가의 P극장에 많은 호모들이 모여 아예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와 낙원동 일대의 보갈 바에 대한 기사도 실려 있었다(김경민, 1993: 87-88).

이렇게 형성된 낙원동 일대의 장소성은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남성 동성애자 문화와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보갈들에게 서로를 만나고 ‘숨통이 트이는’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유하 시인의 ‘과고다극장을 지나며’에서는 ‘매춘부’와 ‘검 씹는 소리’로 표현되는 이 시기 ‘P극장’의 어두운 상영관 안에서 이루어졌던 성적 접촉들이 멜랑콜리한 기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자는 법적인 이름이나 권리의 주체로서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사회 기층에서는 공공장소에 부착된 ‘경고문구’나 ‘낙서’를 통해서건, 대중잡지나 미디어의 ‘고발’과 ‘충격’을 통해서건, 사회적으로 존재해왔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시기 보건사회부와 에이즈 예방 민간단체 또한 특정 인구집단으로서 동성애자를 상정하고 있었다.

이 시기 ‘호모’들은 미디어에 의해 대중 앞에 특정한 몸들로 재현되는 한편, ‘변태’라는 지위와 ‘에이즈’를 전파하는 범죄자로서의 이미지로 인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서로를 만나야만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우나 수면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가해자와 같은 모습으로 포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드러난 동성(연)애자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중적인 공포를 조성한 에이즈와 관련되어 끊임없이 재구축된

사회적 구성물이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성노동자와 함께 동성연애자는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표상들은 보갈들의 삶에 실질적인 사회적 힘을 행사하였다. 사회적 낙인(stigma)은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위태위태한 이중의 삶을 연기해내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호모’ 또는 ‘보갈’이라 지칭하면서 체념과 연민의 감정을 공유했다. 김경민은 이를 “일반인들보다 두 배의 삶을 살아가는 보갈로서의 삶”(김경민, 1993: 24-25)으로 묘사한다.

호모로서의 삶이란 얼마나 힘겹고 숨막히는지,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 또한 힘들고 고단할진대 무언가 필사적으로 세상에 숨겨야 하는 우리들의 삶은, 말 그대로 두 배의 삶이며 두 사람 몫의 삶입니다”(215).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이중 생활을 통해서 피를 말리는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었다(24).

이러한 사회적 낙인과 개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한편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과 자신까지도 기만해야 했다. 『선데이서울』에도 사건으로 소개되었듯이(1986.2.23, 1987.6.21, 1989.7.30 등), 동성연애자라는 사실 자체를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다는 협박을 통해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 서로의 신분과 개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억압적 분위기 아래 ‘호모’는 다 똑같은 변태적인 몸뚱아리이기도 했다. 고급 승용차와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지언정, “너도 별 수 없는 호모”였으며, “남자없이 는 못 사는 별종들”이었다. “니가 아무리 잘 살아도 넌 나와 똑같아. 너도 호모, 나도 호모. 우린 호모야. 그것뿐이야. 그것만이 진실이지. 다른건 아무것도 아니야”(김경민, 1993: 74). 같은 남자를 욕망하는 변태성 앞에 모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이들은 의미를 잃었다. 동시에 이러한 인식들

은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다른 보갈과 오까마들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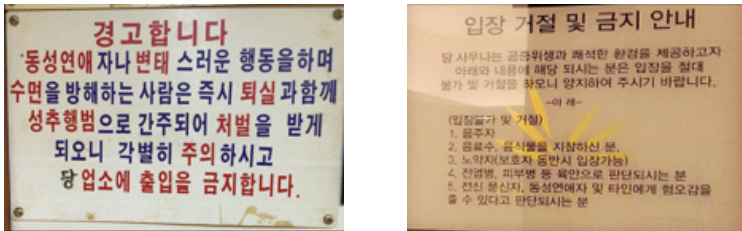
우린 만나면 수다 떨기에 바빴다. 극장에서건, 공원에서건, 술집에서건 만나면 있는 대로 끼를 떨며 재미있어 했다. … 난 그 녀석들과 함께 으면 마음이 편해졌다. 나와 똑같은 모양을 한 녀석들, 나와 같은 가슴앓이를 알았던 녀석들, 지금도 몰래 가슴을 앓고 있는 서러운 녀석들. 난 녀석들을 사랑한다. 너무너무…(132).

하지만 보갈 집단 내부에서는 점차 ‘게이’, ‘오까마’ 등으로 불렸던 트랜스젠더와의 구별과 함께 감염인에 대한 배제가 심화되어갔다. 트랜스젠더와의 구분은 현재로서는 보갈들의 정체화 과정에서 남성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며, 보갈 집단 내부에서 남성성이 정체성의 주요한 요소로 만들어지는 과정 및 한국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코넬, 2010)이 이것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는 다른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주제이다. 또한 감염인에 대한 배제와 관련되어 동인련의 보고서(2013)가 중요한 것은 HIV/AIDS 감염인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공간들과 보갈 집단 내부에서의 배제와 차별이 가장 노골적이었던 것으로 남아 있다(45-46, 57, 89-92, 115-118). 사실상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라는 관념이 구성되고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과, 보갈들의 문화, 공간, 실천이 구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HIV/AIDS는 분리할 수 없는 요소였지만, 정작 보갈들과 초기 성소수자 운동은 동성애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HIV/AIDS를 자신들과 분리시켜 왔다(63).

2) ‘호모 출입금지’와 시공간적 계토화

오래 전부터 동성애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시공간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게 된 “이쪽 세계”라는 말은 일본 퀴어 커뮤니티에서의 용법(“この世界”) (McLelland, 2005: 1)과 마찬가지로 분리된 세계의 역사성을 함축한다. 한 민족이 이성애적인 기원을 갖는 것으로 상상되고 동성애가 사회보존학적 범죄로 주변화되면서,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는 점차 분리되었으며, 서로의 안전보장(security)을 위해 서로의 영역에 출입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출입 금지’는 욕망을 가진 신체들의 지속적인 출몰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호기심과 비난의 대상으로서 동성애가 필요했던 한국사회 스스로에 의해서도 어겨져 왔다. 이러한 모순들은 동성애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님의 대부분이 동성애자인 사우나와 같은 특수한 장소들을 형성하게끔 했다.

〈그림 4〉 대중사우나 경고문구



자료: 연구자 촬영 / 트위터 출처

1980년대 중반 이후 극대화된 에이즈 공포는 결국 남성 동성애자들 개인을 넘어 집단적인 범위에서 실천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하였다. “에이즈 불뚱에 비틀거리는 환락가: 게이바로 이름난 곳이 타격 심해”(1987.3.22)와 “에이즈 불뚱에 이태원일터 잃고 길거리로 나선 여장남 퇴폐영

업”(1987.4.5)에서 보듯, 당시 에이즈 공포는 한국의 성매매 산업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집단 전체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동성연애자나 동성연애 경험자의 고용 또는 출입과는 거리가 먼 업소입니다”(1987.6.14)와 같은 문구를 내거는 유흥업소도 생겨났다. 에이즈 공포는 보갈들 내부에서조차 서로를 의심하고 자신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었다. 동인련 보고서는 증언자들의 기억을 통해 “사회에서는 에이즈라는 질병을 극적인 이미지로 각인시켰지만 정작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쉬쉬했다”(동인련, 2013: 90)는 것을 발견한다. 에이즈가 ‘호모섹스’의 대가로 인식됨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공포와 적대심이 자라났다. 업소 주인은 HIV 감염자로 알려진 사람이 오면 출입을 막거나 “먹고 간 자리에 소독약을 뿌리거나 먹던 식기를 버릴 정도”였으며, 감염인 모임에 몰래 술집 사장들이 나가 누가 ‘감자(감염인)’인지 확인하는 소동도 벌어졌다고 한다(91). 이러한 분위기에서 감염인들은 보갈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숨겨야만 했다. “철저하게 숨기고 숨겨야만 하는 빌어먹을 세상. 난 어찌다 한 세상을 숨기며 살다 가는가. 어려선 내 외로움을 숨기고, 커서는 내 피의 뜨거움을 숨기고, 세상에는 내가 호모임을 숨겨야만 하더니, 이젠 내 몸 속에 퍼져 있는 에이즈란 몹쓸 병의 바이러스까지 숨기며 꼭꼭 숨기며 살아야 하는가”(김경민, 1993: 199).

‘호모’에 대한 혐오는 이들을 항상 옮겨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의 만남과 실천은 일종의 ‘캠프’처럼 한시적인 시공간을 창출하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옮겨다니는 도시적 전술의 하나가 되었다. ‘호모 새끼들’을 향해 욕을 해대는 이웃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였던 김경민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집단적인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문으로 이를 표현한다. “빌어먹을 세상, 또 떠나야 하는 거야? 또 다른 곳으로 우릴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쥐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거야?”(127) 이처럼 보갈들은 개인적으로는 공적

인 시공간을 피해 마련된 한시적 계토에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다른 이들을 만나고 동질감을 느꼈다. 남산과 탑골공원, 부산의 자성대공원 등과 같은 도심 공원의 야간 시간대나 고속터미널과 같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머물지는 않는 장소들, 특정한 극장과 사우나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도시의 보이지 않는 장소들로의 추방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의도치 않은 효과이자 남성 동성애자들의 대응방식이었다. 또 동성애가 은밀해질수록 사회적 낙인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조성배(2003)의 연구는 1990년대 남성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조차 이러한 공간들에서 이루어지는 크루징과 성적 실천들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들은 1990년대로 넘어와 계속해서 벌어졌던 공갈협박, 성추행 등의 사건, 조명과 CCTV 설치 등 공원 관리기술의 변화, 극장의 멀티플렉스화 등의 제도적 변화로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을 만날 확률이 낮은 공간들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 신당동과 낙원동에 형성된 바(bar) 형태의 업소들은 ‘이쪽’ 사람들에게 의해 운영되는 독립된 공간이었고, ‘멤버십’을 내걸고 보갈들만 출입을 허용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공원이거나 극장과 같은 다른 공간에 비해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다. 동인련 보고서(2013)는 비싼 술값과 선수(성관매자)들과의 거래로 다른 장소에 비해 차별화된 공간이었으며, 증언자는 연예인이나 기업체 사장 등 유명인들이 많이 찾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점차 보갈들 내부의 자기혐오는 계층적 선과 만나면서 공간 이용의 차별화를 만들어냈다.

이렇듯이 시공간적 측면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변화는 크루징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숫자와 종류가 축소되어간 반면, ‘이쪽’ 전용의 업소들이 안전이 보장되는 대안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공공장소로부터 점차 닫힌 공간, 내밀한 공간으로 수렴”(동인련, 2013: 17)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낙인과 대중적인 혐오에 대응하여 분리되며 형성된

공간이었으며, 동시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정체성과 소비문화가 공유되는 기반이 되었다. 조성배(2003)는 이러한 공간들을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으로 개념화한다. 그는 이러한 공간에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몸의 정치'를 통해 지배규범들을 전복시키는 정치적 실천을 이루어내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가 보여준 바와 같이 남성 동성애자들의 공간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회적 배제와 만남의 역사성을 함축하고 있다.

4.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성애'는 하나의 변혁기로 생각되는 1990년대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가시화되어왔다. 이러한 이해 범주들은 서로 교차하거나 변용되면서 이후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스스로가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실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로 이어지는 남성 동성애자, 즉 '보갈'들의 집단적 가시화의 형태는 1980년대의 '3S 정책'과 그로 인한 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폭발이라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AIDS에 대한 사회적 공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되기 힘들다. 이 시기를 동성애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동성애자 집단의 문화가 동시에 형성되던 시기로 볼 때, 최초의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초동회'와 외국인과 동성애자 집단을 주요 사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전신인 '한국에이즈예방운동본부'가 같은 해인 1993년에 결성된 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미디어는 한편으로 동성애를 외국으로부터의 문화적 오염과 AIDS를 통한 신체적 오염의 수사로 연결시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종류의 성

적 일탈들과 비도덕성 및 범죄성과 연결시키면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끊임없이 재생산했다. 물론 이러한 혐오는 한국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이성애규범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여기게끔 만들었다. 또한 담론으로서의 동성애가 구성되어 온 것처럼, 실천적 행위이자 집단으로서 동성애 또한 역사적 유산들을 상속함으로써 존재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갈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통의 정체성을 확장시켜 왔지만, 동시에 트랜스젠더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김정민의 고백록은 동성애자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당시 기획을 넘어서서 이러한 연민과 우정, 이중의 배제에 대한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 동성애자 개인과 집단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특수한 방식들, 그리고 동성애라는 범주를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 유산들을 검토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 김경민(1993), 『겨울 허수아비도 사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서울: 성림.
- 김수정(2011), “장발, 미니스커트, 선데이 서울: 1960-70년대 한국사회와 “퇴폐”의 발명”, 「한국사회 섹슈얼리티의 사회문화적 구성: 역사적 담론 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학 장기기초연구비지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92-108쪽.
- 김순남(2013), “이성에 결혼/가족 규범을 해체/(재)구성하는 동성애 친밀성: 사회적 배제와 ‘독립적’ 삶의 모델 사이에서”, 『한국여성학』, 제29권 1호, 88-125쪽.
- 동성애자인권연대(2012), 「에이즈, 다르게 생각하기: 법과 제도, 홍보캠페인, 언론보도를 통해 본 한국사회 에이즈 예방과 성」, 서울: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 _____ (2013), 「40-60대 남성 동성애자 HIV/AIDS 감염인 보고서」, 서울: 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 루인(2012), “캠프 트랜스: 이태원 지역 트랜스젠더의 역사 추적하기, 1960-1989,” 『문화연구』, 제1-1호, 244-278쪽.
- 박관수(2006), “1940년대의 ‘남자동성애’ 연구”, 『비교민속학』, 제31집, 389-438쪽.
- 서동진(2005), “인권, 시민권 그리고 섹슈얼리티: 한국의 성적 소수자 운동과 정치학”, 『경제와 사회』, 제67호, 66-87쪽.
- 심은정(2014), “제5공화국 시기 프로야구 정책과 국민 여가”, 『역사연구』, 제26호, 197-238쪽.
- 이현진(2014), “1980년대 성애영화 재평가를 위한 소고”, 『현대영화연구』, 제18권, 93-126쪽.
- 임종수 · 박세현(2013),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제44권, 91-136쪽.

장경섭(2010), “세계의 한국화? 반영(反映)적 지구화 시대의 압축적 근대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2010.12).

장정일(1988),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부산: 열음사.

정근식(2013), “차별 또는 배제의 정치와 ‘소수자’의 사회사 재구성”, 『경제와 사회』, 제100호, 183-208쪽.

정율(2006), “동성애자, AIDS 예방과 낙인의 경계선에서”, 『진보평론』, 제27호, 150-159쪽.

조성배(2003), “게이 남성의 소비 공간과 몸의 정치학”,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_____(2011), *Faceless Things: South Korean Gay Men, Internet, and Sexual Citizenship*, Dissertation, The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코넬, 레윈(2010), 『남성성/들』, 안상욱·현민 역, 서울: 이매진, Connell, R. W.(1995), *Masculinit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티울(2015), “시간 사이의 티울 #4: 50-60년대 언론에 소개된 트랜스젠더, 간성, 남장여자/여장남자”, 『친구사이 Newsletter』, 2015년 5월호.

한채윤(2011),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 『진보평론』, 제49호, 100-128쪽.

_____(2012), “엮어서 다시 생각하기: 동성애, 성매매, 에이즈”, 『성의 정치성의 권리』, 권김현영·루인·김주희 외, 서울: 자음과모음, 155-193쪽.

핫토리, 타미오(2006), “1980년대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에 있어 1980년대는 어떤 시대였나?”,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변용: 시민, 시민운동, 환경』, 김문조·핫토리 타미오 공편, 서울: 아연출판부, 11-42쪽.

혼마, 규스케(2008), 『조선잡기』, 최혜주 역주, 파주: 김영사.

Halperin, D. M.(2002), *How to Do the History of Homosexualit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Lelland, M.(2005), *Queer Japan from the Pacific War to the Internet Age*, Oxfor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 McRuer, R.(2006), *Crip Theory: Cultural Signs of Queerness and Disability*,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 Suganuma, K.(2012), *Contact Moments: The Politics of Intercultural Desire in Japanese Male-Queer Culture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잡지기사>

- 『선데이서울』, 1986.2.16, “성전환한 남녀가 결혼식: 완전한 신랑될 때까지 初夜는 보류”.
- _____, 1986.2.23, “동성애 즐긴뒤 금품턴 상습범”.
- _____, 1986.3.9, “가출청소년 ‘디스코텍’서 짝지어 쪽방서 혼숙”.
- _____, 1986.4.6, “난 왜 엄마가 돌일까: 레즈비언사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2살 콜리군”.
- _____, 1986.6.29, “사우나탕에 호모족”.
- _____, 1986.7.6, “나는 여자아닌 남자입니다: 일본터키탕 게이바서 일하는 별난 젊은이”.
- _____, 1986.7.6, “과출부와 여주인의 레즈비언 동반자살: 탄살림 차려 놓고 뜨겁게 살다가 한여자가 빗독촉에 음독하자 따라가”.
- _____, 1986.7.20, “게이보이가 性轉換하고 몸을 판다: 여자못지않게 교태떨며 신분 노출꺼려 지방으로 원정”.
- _____, 1986.7.20, “호모전용 사우나서 동성애 즐기다 걸렸다: 日本人 에이즈환자가 털어놓은 감염경로와 투병생활”.
- _____, 1986.8.10, “아파트 숲에 男娼지대”.
- _____, 1986.10.6, “대낮 목욕탕 휴게실 호모족 관친다: ‘동성애 행위 엄금’등 안내문 내건 주인들 손님떨어질까 전전공공”.

- _____, 1986.11.23, “충격! 에이즈 불뚱 내국인에도 튀었다: 동성연애 경험있는 20·40대 두 남자에 원인균 발견”.
- _____, 1987.3.8, “에이즈로 죽은 피아니스트와 애인”.
- _____, 1987.3.22, “에이즈불뚱에 비틀거리는 환락가: 게이바로 이름난 곳이 타격 심해”.
- _____, 1987.4.5, “에이즈 불뚱에 이태원일터 잃고 길거리로 나선 여장남 퇴폐영업”.
- _____, 1987.6.14, “전국이 몸살 AIDS 악성루머: ‘종업원 모두 에이즈 검사’ 받았음”.
- _____, 1987.6.21, “동성연애 한것 부인에 알려졌다, 변심여자역 협박 돈뜯은 남자역”.
- _____, 1987.9.20, “우리는 레즈비언”.
- _____, 1987.9.27, “우리가 동성연애자라니요”.
- _____, 1987.11.1, “서울 한 복판에 ‘호모카페’ 즐비: 주인도 종업원도 호모”.
- _____, 1987.11.15, “쾌락과 사치 위한 윤락녀 늘고있다”.
- _____, 1987.12.25, “19살 소녀도 男娼 데리고 돈주정”.
- _____, 1988.10.2, “어른장난감 20만원짜리 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고객”.
- _____, 1988.11.27, “구역질나는 생비디오에 주먹질: 양공주와 음란추태 벌인 흑인병사 두명에게 분노”.
- _____, 1989.2.12, “한국 호모족 AIDS 겁안낸다: 일본인 유학생의 설문조사로 드러난 同性愛 실태”.
- _____, 1989.2.26-3.26, “어느 대학생의 충격고백수기: ‘나는 호모였다’ 1-5”(연재).
- _____, 1989.6.11, “젊은여자들 추태극성: 낯뜨거운 외국인선호”.
- _____, 1989.7.30, “변태섹스 폭로위협 파트너 등친 ‘호모제비’”.

- _____, 1990.5.20,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와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 _____, 1991.2.24, “모두가 남자올시다’ 춤추는 여장 섹시걸들”.
- _____, 1991.3.3, “대학가 별난 학점따기 호모촌 윤락가 현장탐구”.
- _____, 1991.3.10, “충격! 리포트 에이즈 사각지대: 호모1번지 낙원동”.
- _____, 1991.8.11, “알몸 너무 이뻐’ 소년 심벌 만지작”.
- _____, 1991.8.18, “호모대학생 제보: 낙원동 뒷골목 정치인 연애인도 드나들어요”.

(논문 투고일: 2015.10.26, 심사 확정일: 2015.11.19, 게재 확정일: 2015.11.26)

〈Abstract〉

Social Exclusion of Same-Sex-Love and Practices of Gay Men in the 1980s *Sunday Seoul* Magazines

Chun, Wonkeun*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same-sex-love’ had acquired visibility and became excluded from Korean society in popular magazines from the mid-1980s until the early-1990s, when the first gay and lesbian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This paper also traces how gay men responded to these social changes. In this period, popular magazines, such as ‘Sunday Seoul’, had represented ‘same-sex-love’ as a source of pollution which pollutes the nation’s culture and traditional values and characterized it as a social crime threatening the society and national body with HIV/AIDS. Gay Men, calling themselves as ‘bogal’ which is a reversed term of prostitution(galbo), developed a common sense of compassion and identity and had formed ‘this world’(iejjok-segye) through separating their own time and space from the society. ‘This world’, however, excluded transgender people or those with HIV/AIDS in order to adapt to the social environm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historical formation of ‘same-sex-love’ as a discursive term and gay men’s practices in this period are important legacies to the understanding homosexuality in Korean society today.

Key words: homosexuality, same-sex-love, heteronormativity, social exclusion, homophobia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